

농식품기업 '디지털 전환' 가속화

전북특별자치도, 전산화·디지털화·빅데이터 활용 디지털 전환 등 총 40개 기업 전폭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가 푸드테크 산업 분야 중 하나인 스마트 제조를 중점 지원하여 농식품기업의 디지털 전환 확산에 나선다.

전북 내 농식품 기업 중 약 87%는 매출 10억 미만, 종사자 10명 이하의 소규모 기업으로 인력난과 설비 부족이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식품 제조 공정의 자동화 및 품질 관리 강화 등 첨단 제조기술 지원에 나서기로 하고, 단계별 맞춤형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전북자치도의 스마트 제조 지원은 세 단계로 나누어 2029년까지 200개 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 단계는 수기 기록을 전산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전산화' 과정으로, 기본적

인 생산 정보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총 200개 기업이 대상이다.

2단계인 '디지털화'에서는 공급자 중심의 ICT 기술을 활용하여 공정 자동화 도입을 지원하며, 80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마지막 3단계는 빅데이터 활용으로 수요를 예측하고 제품의 생산성을 높이는 '디지털 전환'으로, 총 40개 기업이 지원을 받게 된다.

전북자치도는 이를 위해 기존 농식품 기업 보조사업을 스마트 제조 기계 및 설비 지원으로 변경 추진한다. 대상사업은 3개 사업으로 △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창업 식품기업 지원사업 △스마트 HACCP 지원사업이다.

특히, 스마트 HACCP 지원사업의 경

우 기존 HACCP 인증 컨설팅 대신 중앙관리점(CCP)을 모니터링하는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연계한 교육 및 컨설팅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 밖에, △소규모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 지원사업 △농생명분야 대표기업 육성 지원사업 △식품기업 창업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스마트 제조 시스템을 적용해, 도내 기업들이 신기술 도입을 통한 자립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스마트 공장 구축을 지원하는 전북테크노파크의 '전북형 스마트 제조 혁신 프로젝트'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 제조 혁신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첨단 기술을 필요로 하는 농식

품기업들이 보다 폭넓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전북자치도는 이를 위해 시군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사업 계획을 공유했으며, 현장 의견을 반영해 12월 내로 최종 시행 지침을 마련해 2025년부터 본격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최재용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혁신산업국장은 "푸드테크 혁신을 통해 농식품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인력난을 해소하는 동시에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것"이라며, "전북이 스마트 제조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첨단 제조기술 도입과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의미(미)있는 고향사랑기부'

전북자치도, 기부제·쌀 소비 촉진 운동 연계 캠페인 전개

전북특별자치도는 고향사랑기부제와 쌀 소비 촉진 운동을 연계하여 2024년 남은 두 달 간 '의미(미)있는 고향사랑기부'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캠페인은 전북 고향사랑기부제가 단순한 기부금 모금과 제도 홍보를 넘어, 도내의 현안과 연계하여 지역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도민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보다 의미있는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자 기획됐다.

이는 '아침밥 먹기 운동'과 더불어 다양한 쌀소비 촉진을 위한 방안으로 다양한 캠페인과 연계하여,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관심을 높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캠페인의 핵심은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집중 기간인 11월부터 12월까지 다양한 홍보와 이벤트를 통해 기부자들이 쌀을 답례품으로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농협, 시·군·수출까지의 전주기를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 전망이다.

대체부품 인증제도는 국토교통부가 지정된 인증기관에서 품질 및 성능이 OEM 부품과 유사한 대체부품을 평가 및 인증하는 체계이다. 이를 통해 외장 부품(범퍼, 휠 등)부터 기능성 소모성 부품(에어필터, 엔진오일 등)까지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인증 제품으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전북자치도는 국내 최초로 자체 인증 기관을 마련하여, 도내 생산 제품의 품질을 보증함으로써 해외시장 진출을 보다 탄탄히 지원할 방침이다.

오택립 전북특별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이번 수출계약은 전북이 자동차 대체 부품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해온 성과"라며, "국내 지자체 중 최초로 도입하는 전북형 대체 부품 인증제도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전북 대체부품의 신뢰도를 높이고, 개발부터 수출까지의 생태계 전주기를 완성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쌀 소비를 8만kg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작년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실적인 84억 7천만 원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전북자치도는 리플릿, 포스터, 온라인 콘텐츠를 포함한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각 참여 기관에 배포하고, 각 기관들은 홍보물 비치, 청내 직원 대상 홍보대면 홍보 지원 등 온·오프라인에서 다각적인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도내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고향사랑 기부문화 확산을 통해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혜수 대외국제소통국장은 "이번 캠페인은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부 문화 확산으로 전북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실적 확대와 전북의 쌀 소비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고향사랑기부제가 단순 기부금 모금과 제도 홍보를 넘어 지역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부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전북농협 김영일 총괄본부장은 "도와 함께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 힘을 쏟고, 도내 우수 농·축산물과 관광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답례품 개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 기부는 인터넷 사이트 '고향사랑e음'을 통해 온라인 접속하거나, 직접 NH농협은행에 방문해 전북 기부에 동참할 수 있다.

/이만호 기자

전북 자동차 대체 부품 베트남 수출길 열려

더넥스트·에이피솔루션 370만 달러 수출 계약 체결



전북자치도내 품질 인증 자동차 대체 부품 제조업체인 ㈜더넥스트와 ㈜에이피솔루션이 베트남 VIET HAN SHOWROOM COMPANY와 370만 달러(약 50억 8천만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자동차 대체 부품 산업의 글로벌시장 개척을 선도하며 베트남 진출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

전북자치도는 도내 품질 인증 부품 제조업체인 ㈜더넥스트와 ㈜에이피솔루션이 베트남 VIET HAN SHOWROOM COMPANY와 370만 달러(약 50억 8천만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전북 대체 부품산업의 첫 번째 베트남 시장 진출로, ㈜더넥스트의 품질 인증부품 3종 3,000개(각 1,000개), ㈜에이피솔루션의 품질 인증 부품 2종 2,000개(각 1,000개)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는 미국 수출에 이은 두 번째 해외시장 개척으로, 전북이 품질과 경쟁력을 갖춘 대체부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하는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

전북의 대체 부품산업은 2018년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 이후 도내 부품산업의 자생력 강화와 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해 시작했다. 2019년부터 대체부품 기업을 대상으로 품질 인증 지원을 추진한 결과, 2024년 기준 총 37개의 품질 인증부품을 개발해 국내외 판로를 확대해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대체 부품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글로벌 수요에 발맞춰 도내 기업이 대체부품 전주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도는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제정하고, 이를 토대로 자체 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전북의 독자적 인증 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도내 기업들은 대체부품의 개발·생산·인증·수출까지의 전주기를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 전망이다.

대체부품 인증제도는 국토교통부가 지정된 인증기관에서 품질 및 성능이 OEM 부품과 유사한 대체부품을 평가 및 인증하는 체계이다. 이를 통해 외장 부품(범퍼, 휠 등)부터 기능성 소모성 부품(에어필터, 엔진오일 등)까지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인증 제품으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전북자치도는 국내 최초로 자체 인증 기관을 마련하여, 도내 생산 제품의 품질을 보증함으로써 해외시장 진출을 보다 탄탄히 지원할 방침이다.

오택립 전북특별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이번 수출계약은 전북이 자동차 대체 부품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해온 성과"라며, "국내 지자체 중 최초로 도입하는 전북형 대체 부품 인증제도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전북 대체부품의 신뢰도를 높이고, 개발부터 수출까지의 생태계 전주기를 완성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민·관 협력으로 용담호 수질보전 총력

전북특별자치도는 6일 무주군 안성면 일원에서 도민 식수인 용담호의 수질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전북지방환경청,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함께 '민·관 공동 정화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하천에 유입된 폐비와

쓰레기 등 오염원을 신속히 제거해 용담호 수질을 개선하고, 안전한 식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80여 명이 참여한 이번 현장 활동은 집중호우로 하천에 유입된 쓰레기를 수거하고, 녹조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된 야적 폐비에 비닐을 씌우는 등 오



염물 관리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여름철 장마와 폭우로 용담호 유역 내에 유입된 쓰레기가 적체되면 서 오염 위험이 증가한 점을 감안해, 민·관이 손을 맞잡고 정화활동을 추진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8~10일 한우 할인 행사 개최

전북특별자치도는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전북 도청 서편광장에서 '대한민국이 한우먹는 날' 행사를 열어, 한우를 저렴하게 구매하고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사)전국한우협회 전북도지회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의 주관으로 진행되며, 한우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한우 소비 문화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전북 지역 한우 생산자 단체인 총체보리한우, 고산미소한우, 정음한우, 단풍미한우, 순창물통

골한우가 참여해 한우를 30%에서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한다.

1등급 등심은 100g당 7,300원, 국거리와 불고기용(1등급)은 2,200원, 1+등급은 2,300원으로 구매할 수 있다. 행사장에서는 구입한 한우를 야의 숯불에 구워 먹을 수 있는 부스를 운영해 도심 속 캠핑 분위기도 만끽할 수 있다.

행사 둘째 날인 9일 오전 11시에는 500인분의 무료 한우 품앗이 나눔이 진행되며, 방문객들은 한우 시식회와 한우 사진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이만호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ail.com